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부산 지역 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도

양혜린¹ · 김학희¹ · 김대봉² · 고경란³ · 고은영⁴ · 곽진영⁵ · 국신호⁴ · 김미혜⁶ · 김민정⁵ · 김은경⁵
김혜정⁷ · 박영미⁸ · 박정선⁹ · 손은주⁵ · 신희정¹ · 우옥희¹⁰ · 윤혜경⁸ · 은충기⁸ · 이미란¹¹ · 이은혜¹²
차은숙¹³ · 최선형⁵ · 최혜영¹⁴ · 추기석⁸ · 한부경⁴ · 한 현¹⁵ · 이원철¹⁶ · 정수영¹⁷ · 오기근⁵

¹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²분당제생병원 영상의학과, ³국립암센터, ⁴성균관대의대 영상의학과, ⁵연세의대 영상의학과,
⁶김미혜 유 클리닉, ⁷경북의대 영상의학과, ⁸부산인제대의대 영상의학과, ⁹서울의대 영상의학과, ¹
¹⁰고려의대 구로병원, ¹¹대전을지의대 영상의학과, ¹²서울보라매병원, ¹³가톨릭의대 영상의학과, ¹⁴이화의대 영상의학과,
¹⁵강원의대 영상의학과, ¹⁶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¹⁷한림의대 영상의학과

목적: 설문지를 통하여 부산 지역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 정도와 조기발견을 위한 행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지역주민을 위한 조기 유방암 무료검진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산 지역 여성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나이, 유방암 검진(유방 자가검진 및 선별 유방촬영술)의 시행여부와 유방암 검진의 동기와 장애, 그리고 유방암에 대한 지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의 연령은 34세 - 74세로 평균나이 50.8세(표준편차 9.1)였다. 또한 2004년 전남 화순과 2005년 서울지역에서의 조사와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유방자가진단은 69명(61%)이 시행하였고 선별 유방촬영술은 72명(63%)에서 받은 경험이 있었다. 유방촬영술의 가장 많은 동기는 정기 검진(34명, 47%)으로 전남 화순(43%)과 서울의 결과(51%)와 비슷하였고 유방검진의 장애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유방암 지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5문항 중 평균 2.02개였으며, 화순(1.66개)과 서울(1.43개)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39$, $p < 0.0005$).

결론: 본 조사는 전남 화순과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된 설문지 조사이며, 암 조기검진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유방암 조기진단을 위해 유방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ndex words: Breast Cancer
Self examination
Mammography
Survey
Screening

서 론

국내의 유방암은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부터는 여성암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 최근 각종 언론매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의료기관 등에서 유

방암에 대한 교육과 조기발견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간암, 그리고 2004년에는 대장암을 추가하여 5대암 검진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유방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확실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 정도와 행태를 아는 것은 유방암 선별검진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하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암에

통신저자 : 오기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135 - 27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 - 92
Tel. (02)2019 - 1280 E - mail: kbrddoh@yumc.yonsei.ac.kr

대한 지식이나 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행동에 대한 조사자료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대한유방검진학회는 2004년에 전라남도 화순 지역과 2005년에 서울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유방암에 대한 조기검진 수검 시행여부와 지식 정도를 조사한바 있다 (2, 3). 이 번 조사는 같은 설문지로 부산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대상 및 방법

2006년 4월 22일 부산 인제 대학병원에서 제 5차 대한유방검진학회가 개최되었으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 국민 유방암 홍보 및 교육, 무료유방암검진 행사를 시행 하였다. 당일 행사장에서 부산지역 주민 참석자들은 유방 암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유방모형으로 자가검진 의 방법과 유방병변의 특성 등을 교육받았고 무료 유방 강좌를 들었다. 이들 중 40세 이상이고 선별 유방촬영 대 상에 해당하는 여성들에 대해 무료로 유방촬영술을 시행 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114명이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여 성들의 나이는 34세에서 74세로 평균나이는 50.8세(표 준편차 9.1)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나이, 유방암 검진(유방 자가검진 및 선별 유방촬영술)의 시행여부와 유방암 검진의 동기 와 장애, 그리고 유방암에 대한 지식에 관한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유방암 지식을 묻는 문항은 5개였으며 3문항 이상을 맞추었을 때를 보통이상으로 정의했다. 응답자중 한 명이 유방촬영술의 장애를 묻는 질문에 다중응답을 하 였다. 설문지 내용은 30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유방 자 가검진, 35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 한 임상진찰, 그리고 4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1-2년 간 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및 유방 촬영술을 해야 한 다는 국립 암센터 및 한국유방암학회 권고안 (4)을 기준 으로 하여 유방자가진단과 유방촬영의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또한 위 자료를 화순지역 및 서울지역의 결과 와 비교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에 대한 검증은 Fisher's exact test와 t-test, 그리고 일원배치 분산분석법을 사용하였고, 유방 촬영술 수검의 장애에 대한 기술 통계는 다중응답분석을 사용하였다.

결 과

부산지역 여성 중 유방 자가진단은 응답자 113명(무응 답 1명) 중 70명(61.9%)이 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 고 화순(73명/131명, 55.7%)과 서울(438명/895명, 48.9%)과 비교하여 유방 자가진단율의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 부산이 가장 높았다.

생애 선별 유방촬영술은 응답자 113명(무응답 1명) 중 72명(63.7%)이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화순 (70명 /128명, 54.7%)과 서울(489명/894명, 54.7%)과 비교하 여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부산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였다.

유방촬영을 하게 된 동기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34명 (유효치 69명, 47.2%)이었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안내문을 보고 시행한 경우가 14명(19.4%), 언론매체 의 홍보가 10명(13.9%), 유방에 증상이 있어서와 기타가 각 4명(5.6%), 그리고 주위 사람의 권유가 3명 (4.2%)이 었다 (Table 1). 40세 이상의 여성에서 최근 1-2년 내에 유방촬영술을 받은 경우는 22명으로 30.6%였다.

유방촬영술의 장애를 묻는 질문에는 유방촬영술을 받 아 본적이 없다고 답한 41명 중 19명이 응답하지 않았 으며 22명이 23개의 답을 표기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으 로는 시간이 없어서(6명, 26.1%)와 기타(6명, 26.1%)가 반수 이상이었고 다음으로는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4명, 17.4%), 귀찮아서(3명, 13.0%)와 유방암으로 진단될까 봐 두려워서(3명, 13.0%), 그리고 어디 가서 검사해야 하 는 줄 몰라서(1명, 4.3%)라고 답했다 (Table 2).

유방암의 지식에 관한 5문항은 유방자가진단의 시기, 유방암 검사를 받는 간격, 병원에서의 유방암 검진의 시 작 나이, 유방암의 원인, 그리고 유방암의 위험인자에 관

Table 1. 생애 선별 유방촬영술의 동기

생애 선별 유방촬영술의 동기	응답자 수 (%)
정기적인 건강검진	34명 (47.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을 보고	14명 (19.4%)
드라마나 뉴스, 잡지를 보고 걱정이 되어서	10명 (13.9%)
유방에 몽우리가 만져지거나 다른 증상이 있어서	4명 (5.6%)
기타	4명 (5.6%)
주위 사람 또는 가족이 권해서	3명 (4.2%)
무응답	3명 (4.2%)

Table 2. 생애 선별 유방촬영술의 장애

생애 선별 유방촬영술의 장애	응답 수 (%)
시간이 없어서	6명 (26.1%)
기타	6명 (26.1%)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4명 (17.4%)
귀찮아서	3명 (13.0%)
유방암으로 진단 될까 봐 두려워서	3명 (13.0%)
어디 가서 검사해야 하는 줄 몰라서	1명 (4.3%)
무응답	19명 (46.3%)

한 내용이다. 이 중 모두 틀린 경우는 11명(9.6%), 1개를 맞춘 경우는 32명(28.1%), 2개를 맞춘 경우는 34명(29.8%), 3개를 맞춘 경우는 22명(19.3%), 4개를 맞춘 경우는 12명(10.5%)이었고 5개 모두 맞춘 경우도 3명(2.6%)이 있었다. 평균 2.02개를 맞추었으며 화순(1.66개)과 서울(1.43개)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p = 0.039$, $p < 0.0005$).

고 찰

유방암의 발생률은 1990년대(5)에는 여성암 중 3위였고 2000년(6)에는 여성암 중 15.1%로 2위, 2001년(1)에는 16.1%로 1위를 기록하였고 2002년(7)에도 16.8%로 1위를 이어갔다. 유방암의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예방과 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 (8)에서는 건강한 여성에서 조기 유방암 진단을 위해 20 - 30대는 의사에 의한 유방진찰을 3년마다 받고, 40대부터는 유방촬영술을 해마다 할 것을 권고하며 20대부터 유방 자가진찰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0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자가검진, 35세 이상의 여성은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40세 이상의 여성은 1 -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 진찰 및 유방 촬영술,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국립암센터 및 한국유방암학회에서 권고하고 있다 (4).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방검진 수검율에 대한 조사는 많지 않으며 이원철 등 (9)이 1997년 의정부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생애 수검율이 21.6%였고 저자들이 조사한 2004년 화순지역 (2)이 54.7% 그리고 2005년 서울지역 (3)이 54.7%였다. 금번 부산지역에서도 63.7%로 저자들의 세 조사에서 모두 높은 수검율을 보였다. 이는 연구대상자 선정을 유방검진학회 기간 동안에 홍보를 통하여 무료 검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유방암검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였을 가능성인 선택편의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유방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와 관심의 증가도 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화순과 서울 그리고 부산지역의 수검율을 비교하였을 때 부산지역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설문지 참여자 114명중 100명이 40대 이상으로, 화순지역에서의 결과처럼 40대 이상이 조기유방검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유방촬영술의 동기로는 정기검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가 67%로 화순과 서울지역에서의 결과와 비슷하였고, 유방검진의 장애로는 시간이 없어서와 기타가

52.2%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유방촬영술의 장애에 대한 질문에 41명중 19명이 응답하지 않아 46%의 높은 결측치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특별히 알 수 없었다.

유방암의 지식 정도는 보통 이하인 2개 이하를 맞춘 경우가 67.5%였으며 화순과 서울의 80%대 보다 낮았고, 평균으로 비교 시 부산이 화순보다 평균 0.36개 ($p = 0.039$) 그리고 서울보다 평균 0.58개 ($p < 0.0005$)를 더 맞추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식 정도가 높았다. 이 결과는 부산지역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Sadler (10)등은 유방암에 대한 지식부족이 낮은 유방자가검진율과 연관성이 있다고 했다. 본 설문 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산 지역의 여성들이 유방 자가검진율과 유방촬영 수검율이 높았고 유방암의 지식 정도도 높았다. 그러나 여전히 유방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 점은 첫째로,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상 여성들이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선택편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자료수집방법이 설문지를 나누어 준 후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집단 설문지법과 면접원이 질문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돕는 설문지 방법을 함께 시행하였는데 한꺼번에 많은 대상자가 몰리고 공간상의 문제로 무응답이 나오는 것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참여 대상자의 기본정보로써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지역 사회 여건 등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궁극적으로 해결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응답률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숙련된 많은 면접원이 설문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조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조사는 일반시민의 유방암에 대한 조기검진 행태와 지식 정도를 알아 보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암 조기검진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1. 한국중앙암등록본부. 한국중앙암등록 사업 연례보고서 (2001.1-2001.12). 보건복지부 2003.2
2. 김대봉, 김학희, 김미혜, 등.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전라남도 화순지역 주민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도. 대한유방검진학회지 2005;2:27-31
3. 김대봉, 김학희, 김미혜, 등.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서울지역 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과 행동. 대한유방검진학회지 2005;2:110-113
4. 제 1회 유방암 조기검진 지침 개발 심포지움. 주관:국립암센터, 한국유방암학회 2001
5. 한국인 암등록 조사자료 분석보고서 (1993.1-1993.12). 대한보건복지부 1995.3
6. 한국중앙암등록본부. 한국중앙암등록 사업 연례보고서 (2000.1-2000.12). 보건복지부 2002.3
7. 한국중앙암등록본부. 한국중앙암등록 사업 연례보고서 (2002.1-2002.12). 보건복지부 2003.12

8. American Cancer Society. ACS Guidelines for Early Breast Cancer Detection. Available at: <http://www.cancer.org> Accessed Apr 5, 2005
9. 이원철, 노운녕, 김영복, 박용문, 맹광호. 제 25회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일반연제 32: 의정부지역 암 조기검진 현황 및 관련 특성 분석.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초록집. 1999
10. Sadler GR, Ryujin LT, Ko CM, Nguyen E. Korean women: breast cancer knowledge, attitudes, and screening behaviors. BMC Public Health. 2001;1(1):7. Epub 2001 Aug 13

J Korean Soc Breast Screening 2006;3:121 - 124

Evaluation of Women'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s for Breast Cancer Screening in Pusan by Survey

Hye Rin Yang, MD.¹, Hak Hee Kim, MD.¹, Dae Bong Kim, MD.², Kyung Ran Ko, MD.³, Eun Young Ko, MD.⁴, Jin Yong Kwak, MD.⁵, Shin Ho Kook, MD.⁴, Mi Hye Kim, MD.⁶, Min Jeong Kim, MD.⁵, Eun Kyung Kim, MD.⁵, Hye Jung Kim, MD.⁷, Young Mi Park, MD.⁸, Jeong Seon Park, MD.⁹, Eun Ju Son, MD.⁵, Hee Jung Shin, MD.¹, Ok Hee Woo, MD.¹⁰, Hye Kyung Yoon, MD.⁸, Choong Ki Eun, MD.⁸, Mee Ran Lee, MD.¹¹, Eun Hye Lee, MD.¹², Eun Suk Cha, MD.¹³, Seon Hyeong Choi, MD.⁵, Hye Young Choi, MD.¹⁴, Ki Seok Choo, MD.⁸, Boo Kyung Han, MD.⁴, Heon Han, MD.¹⁵, Won Chul Lee, MD.¹⁶, Soo Young Chung, MD.¹⁷, Ki Keun Oh, MD.⁵

¹Department of Radi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ity of Ulsan,
²Daejin Medical Center, Bundang Jesaeng hospital, ³National Cancer Center,
⁴Sungkyunkwan Univeristy, ⁵Yonsei University, ⁶Kim Mi Hye Breast Clinic,
⁷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⁸Pusan Paik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⁹Seoul National University, ¹⁰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¹¹Eul Ji University ,
¹²Seoul BORAMAE hospital, ¹³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¹⁴Ewha Womans Unoversity,
¹⁵Kangwon University, ¹⁶Department of Epidemi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¹⁷Hallym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of women's knowledge and screening behaviors for breast cancer in Pusan by survey.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included 114 inhabitant women, who participated voluntarily in free screening program for early detection of breast cancer.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age of participant, questions for knowledge of breast cancer, attitude and behaviors related to breast cancer screening. The ages of participants ranged from 34 to 74 years (mean age: 50.8 years). We compared this study with previous studies in Hwasun-gun and Seoul.

Results: Sixty-one percent of participants had been performed breast self examination and sixty-three percent of participants had been performed screening mammography. The most frequent cause of related breast cancer screening was regular check-ups and the most frequent barrier was inconvenience of take time. In knowledge of breast cancer, mean value of correct answer was 2.02 an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than in previous surveys of Hwasun-gun and Seoul ($p=0.039$, $p<0.0005$).

Conclusion: These data suggest that active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are essential for early detection of breast cancer. This study may be applied to plan and develop screening program.

Index words: Breast Cancer
 Self examination
 Mammography
 Survey
 Screening